

어머니 대모애착, 양육효능감, 경제적 수준과 영유아기 애착 발달과의 관계

정경화* 김숙령**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Attachment, Parenting Efficacy,
Mother's Economic Level and Infant-child's Attachment Development

Jeong, Kyung Hwa Kim, Sook Ryong

본 연구의 목적은 어머니의 대모애착과 양육효능감 및 경제적 수준이 영유아 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대전시 5개구에 위치한 8개소에 재원중인 12개월에서 36개월 사이의 영아와 48개월에서 60개월 사이의 유아 총 60명,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영아와 유아의 애착 측정을 위하여 영아 Q-set검사와 Slough와 Greenberg의 유아용 SAT 면접을 실시하였다. 또한 어머니 대모애착은 성인애착 척도(AAS)를 번안한 질문지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어머니 양육효능감은 이윤진의 척도를 이용하여 평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어머니의 대모애착이 영유아 애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경제적 수준이 영아 애착형성에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 주제어 : 애착, 대모애착, 양육효능감, 경제적 수준

* 제 1저자 : 배재대학교 유아교육과 시간강사

** 교신저자 : 배재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mugigae1003@hanmail.net)

I. 서론

인간은 출생 후 오랜 기간 동안 누군가의 도움으로 성장·발달이 이루어진다. 누군가의 도움이라 할 때 그 ‘누구’란 인간이라면 누구나 늘 그리워하는 ‘어머니’를 가장 먼저 연상하게 될 것이다. 이렇듯 출생 후 한 인간으로 바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데 어머니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즉, 어머니에 의한 영아기의 자녀 양육은 애착과 신뢰감 형성으로 이어지고, 이것은 이후에 한 인간의 발달에 긍정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인생의 초기 주 양육자와 영유아 사이에 형성되는 지속적이고 애정적인 관계를 Bowlby(1958)는 애착이라고 명명하였다. 인간 발달의 특성상 대체로 어머니가 주 양육자가 되는 영유아기에 어머니와 형성하는 애착은 다른 어떤 관계보다도 선행하여 형성되는 가장 기본적인 관계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어머니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영아는 가정 밖에서의 새로운 대인관계 형성에 자신을 갖게 되며, 타인에 대한 신뢰감과 자신이 유능하고 효율적인 존재라는 개념 등을 발달시켜 또래나 성인들과 더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게 된다(송명자, 2008; Sroufe, 1993). 인지 발달 면에서도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유아는 탐색 활동이 더 능동적이고 문제 해결 능력도 우수하며, 대상영속성의 개념을 더 빨리 습득한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다(Durrett & Hazan, 1982). 이렇듯 영아와 어머니 간의 초기 애착 경험이 이후 어머니와 자녀 간의 관계뿐 아니라 영유아의 제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

초기 애착개념은 부모-자녀 간의 유대관계에 집중되었지만 최근에는 부모 외의 타인인 또래나 형제 그리고 성인기에 이르러서는 배우자나 연인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정서적, 애정적 유대감이라는 개념으로까지 확장되었다. 뿐만 아니라 부모에 대한 애착은 영유아가 성인이 된 후 자신의 자녀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세대간 유전적 특성을 갖고 있다. 즉, 초기 부모-자녀 관계에서의 애착경험이 자아 개념과 타인에 대한 기대의 발달에 영향을 미쳐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애착의 개념이 더 넓게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영아기에 형성된 애착이 전 생애뿐 아니라 세대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는 Bowlby(1977)가 제시한 내적실행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의 개념에서 찾을 수 있다. 내적 실행모델이란 애착과 관련된 정보를 조직하고 그러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획득하거나 제한하는 일련의 규칙으로 양육자, 자신, 환경 그리고 이러한 요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적인 정신적 표상을 의미한다(Bretherton, 1985).

한편 과거에는 애착을 전 생애적인 발달적 측면으로 보는 관점이 지배적이었으나 최근 들어 애착이 성장을 통해 변화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양육자와 타인에 대한 사회적 기대는 생애 첫 해 동안 발달하며 후에 보다 정교화 되는데, 이와 같이 초기에 형성된 애착의 질은 전 생애에 걸쳐 비교적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성향을 나타낸다는 입장과 달리 인간 발달에서 초기 경험과 후기 발달과의 관계를 다르게 보는 학자들도 있다(Crowell, & Feldman 1988; Erickson, Sroufe & Egeland, 1985). 이들은 영아 초기의 부정적 경험이 영구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동시에 초기의 긍정적 경험이 이후에 경험하는 환경의 부정적 영향을 계속해서 완화시켜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Sroufe, 1986). 유아기에는 애착을 형성하는 대상이 더 넓어지면서 애착에 대한 모든 문제가 반드시 영아기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Cummings, & Cicchetti, 1990)는 견해는 유아기 애착이 변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유아기 애착 특성은 영아기와는 다른 형태로 예측이 가능한 방식으로 변하며 (Crockenberg, 1981) 영아기와는 다른 유아기 애착 특성의 변화는 발달상 유아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능력들과 함께 성장함으로써 최적의 상태의 새로운 애착 체계를 이끌어 낸다(Main, Kaplan & Cassidy, 1985; Schneider-Rosen, Braunwald, Carlson & Cicchetti, 1985).

이러한 결과들은 영아기에 애착 형성이 불안정하다 하더라도 발달의 가소성을 생각할 때 이후에는 불안정한 애착을 안정 애착으로 재형성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애착의 결정적 시기인 영아기뿐 아니라 가소성이 큰 유아기의 발달적 특성에 주목하여 두 시기를 아우르는 연구로서 각 시기의 애착 측정을 실시하였다.

한편 부모 자녀 관계를 연구할 때 부모 자녀 관계를 단순히 부모와 자녀간의 일방적 혹은 쌍방적 관계만을 볼 것이 아니라, 부모 자녀 관계를 둘러싼 다른 체계들과도 연관시켜 체계론적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시각이 대두되었다(Belsky, 1981). 따라서 영아-어머니 간의 애착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양육행동뿐만 아니라 영아-어머니의 애착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 어머니의 대모애착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같은 변인들도 포함해야 한다. 어머니의 대모애착과 양육효능감은 어머니의 개인적 차원에 속하지만 이는 다른 가족원들과의 관계와 더불어 사회적 관계와 상호작용하므로 다른 체계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어머니 대모애착은 자녀의 애착과의 관련성이 밝혀져 애착의 세대간 전이가 주장되어 왔다(진미경, 2006; Shah, Fonagy & Stathern, 2010).

Bowlby(1982)의 애착이론에서는 어린 시절 부모와 형성된 내적실행모델은 부모가 된 후의 자녀양육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람마다 애착의 질이 다르게 형성 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으나 Hazan과 Shaver(1987)가 성인의 애착을 측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어머니마다 아이와 다른 애착을 형성하는 원인을 발견하게 되었다. 어머니가 자신의 어머니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면, 자녀와 안정 애착을 형성하고, 어머니가 자신의 어머니와 좋지 못한 관계를 유지했다면, 자녀와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즉, 어머니가 어렸을 때 맺은 애착으로 자녀와 맺을 애착을 예측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어린 시절 형성된 애착은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미치며 세대전이가 이루어진다. 그렇지만 안정 애착을 형성했는지라도 살아가면서 위기를 경험하면 그것이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고, 영아기에 불안정 애착을 형성했는지라도 자라면서 친구나 애인, 배우자를 만나면서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부모가 된 후 자녀와 안정 애착을 형성할 수도 있다. 전효정(2003)은 어머니의 내적실행모델이 유아의 애착에 미치는 영향이 20% 이하로 나타나 유아의 애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인이 있음을 주장하였고, 애착의 세대전이를 연구한 일부 연구에서도 부모의 내적실행모델이 자녀의 애착과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박응임, 1994; 이영환, 1992). 이상과 같은 결과는 애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변인에 대해 관심을 갖게 했다. 특히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양육 태도 중 양육효능감에 관심을 갖게 하였다.

한편 최근의 연구에서 실제 능력에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더 의미 있게 일을 성공적으로 잘 해낼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믿음의 한 종류로 자기효능감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최형성, 2002). 양육효능감은 Bandura(1986)의 사회인지이론에서의 ‘자기효능감’을 양육의 의미에 적용시킨 것이다. 양육효능감이 높은 부모는 영아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양육

행동을 많이 보여주며 영아의 사회적, 심리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융통성 있고 일관된 양육행동으로 자녀에게 따뜻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며 자녀를 능력과 자원이 많은 존재로 인정하고 문제해결 상황에서 더 적절하게 도움을 주는 양육행동을 보여준다(문혁준, 2005; 서소정, 2004; Mondell & Tyler, 1981).

자녀 양육에 대한 어머니 특성과 애착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들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어머니와 자녀의 애착은 안정적으로 형성된다(Donovan & Leavitt, 1989)고 하였다. 이경혜(2002)는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는 상황에서 매일 일어날 수 있는 스트레스 사건에 대해 이를 스트레스로 지각하는 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자녀의 애착 안정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전효정(2003)은 어머니가 자녀에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양육행동을 보일 경우 자녀의 안정 애착은 높게 나타나며, 어머니가 거부적인 양육행동을 보일 경우 자녀는 불안정한 애착 유형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자신의 양육능력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거나 자녀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할 경우, 자녀에 대한 양육행동을 부정적으로 나타내어 어머니와 자녀가 안정적으로 애착을 형성하는데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애착이 어머니와 영유아 사이에서 관계를 나타낸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어머니의 인구학적 특성이 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연구도 있다. 이영, 신은주, 나중혜(1994)는 어머니의 직업적 상황들과 어머니의 취업유무, 가정의 총수입은(김영지, 1994; 이숙희, 김숙령, 2001) 애착 유형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밝혔다. 반면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영유아의 애착은 차이가 있었고 저소득층의 유아들은 어머니로부터 민감한 반응을 얻지 못하였다고 밝힌 연구들도 있었다(이영, 신은주, 나중혜, 1995; 이영, 박경자, 나유미, 1997). 이러한 환경은 유아의 정서적 특성을 까다롭고 다루기 힘든 기질적 특성으로 발전시켜 안정 애착 형성의 유지를 어렵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수준이 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지금까지의 애착에 관한 연구는 영아와 어머니 또는 유아와 어머니의 관계를 중심으로 영아기 혹은 유아기의 발달 단계를 구분하여 이루어진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또한 어머니 관련 변인을 어머니의 양육태두리는 큰 태두리 안에서 애착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를 볼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영아기에 불안정한 애착이 형성되었다고 하더라도 발달의 가소성이 큰 유아기의 발달적 특성상 이 시기에 불안정한 애착을 안정 애착으로 재형성할 수 있다는 관점을 취하여 영아기와 유아기를 동시에 연구대상으로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내적실행모델의 이론에 근거할 때 대모애착은 다음 세대의 어머니와 자녀 사이의 애착 형성에 작용한다. 또한 자녀의 애착 형성이 양육 과정에서 이루어짐을 고려할 때 어머니가 갖는 양육효능감과 경제적 수준은 중요한 변인이 된다. 즉, 어머니의 대모애착과 양육효능감 및 경제적 수준은 영유아 초기의 정서 발달에 중요한 변인인 애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대모애착과 양육효능감 및 경제적 수준을 영유아 초기의 정서 발달에 중요한 변인인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포함하여 어머니 대모애착과 양육효능감 및 경제적 수준이 영아기와 유아기의 상이한 발달 단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는 애착에 대한 어머니와 가정의 경제적 변인의 영향력이 영아기나 유아기나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피는 것에 연구의 중점을 두었다. 특히 본 연구의 어머니 변인 중 어머니의 영유아기 애착 경험에 대한 내적실행모델이 자녀의 영아기와 유아기 애착 형성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여부를 파악하여 앞으로 부모가 될 준비를 하거나 영유아기의 자녀를 둔 어머니들에게 어머니의 대모애착 즉, 애착의 세대간 전이의 중요성을 시사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대모애착과 양육효능감 및 경제적 수준은 영아기 애착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대모애착과 양육효능감 및 경제적 수준은 유아기 애착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유아교육기관에 재원중인 12개월에서 36개월 사이의 영아와 48개월에서 60개월 사이의 유아 그리고 대상 영·유아의 어머니이다. 연구 대상 선정은 대전시의 5개구에 위치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및 대한주택공사의 협조를 통한 명단으로부터 무작위 선정하였다. 각 기관을 통해 연구 협조문을 보내 허락을 구한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어머니와 영유아는 총 80쌍이었다. 그러나 연구에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하여 본 연구의 대상은 영아 29명(남아 14명, 여아 15명) 유아는 31명(남아 15명, 여아 16명)이었다. 또한 영아들 어머니의 평균연령은 34세, 유아들의 어머니의 평균연령 37세였다. 한편 각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400만원 이상의 영아가 41.9%, 유아 48.3%로 연구에 참여하였다.

2. 연구 도구

1) 애착

(1) 애착 Q-set

애착 Q-set는 Bowlby의 애착이론에 근거하여 Waters와 Deane(1985)이 12 ~ 36개월의 유아를 대상으로 애착관계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 영아의 애착 안정성의 측정을 위해 이영, 박경자, 나유미(1997)의 한국판 애착 Q-set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애착관계에 대한 내적실행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을 행동으로 기술한 짧은 문항들로 이루어진 90개의 카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찰자나 어머니가 문항이 적힌 카드를 읽고 유아의 행동과 유사한 정도에 따라 1점에서 9점까지 9개의 묶음으로 카드를 분류하는 것이다. 먼저 90장의 카드를 영아의 행동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상, 중, 하의 세 묶음으로 나누고 각 묶음을 다시 세 묶음으로 나누어 최종적으로 9개의 수준으로 분류한다. 즉, 90장의 카드 중

영아의 특성과 가장 일치하는 행동의 카드는 9점, 가장 일치하지 않는 행동의 카드는 1점을 주는 식으로 각각의 카드는 1점부터 9점까지의 점수가 결정되며 각 점수마다 10장의 카드가 놓인다. 애착안정성 점수는 어머니가 카드를 분류하여 영아에게 부여한 점수와 이영, 박경자, 나유미(1997)가 한국의 영아들을 대상으로 개발한 준거점수간의 상관관계를 통해 구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영, 박경자, 나유미가 개발한 준거점수 기준에 따라 24개월 이전 영아는 12개월용 준거 점수를, 24~35개월 유아는 36개월용 준거 점수를 사용하였다.

Waters와 Deane(1985)이 조사한 이 도구의 신뢰도는 두 명의 관찰자간 일치도가 .75~.95였으며, 선행 연구에서 나타난 관찰자간 평균 일치도는 .78(Copeland et al., 1997), .84(Howes, 1997)였다. 국내연구에서는 관찰자와 어머니 간 평균 일치도가 .75(이영, 신은주, 나종혜, 1994), .73(이정희, 1994)으로 나타났다.

(2) 유아용 분리불안 테스트(Separation Anxiety Test: SAT)

본 연구에서는 부모에 대한 48개월에서 60개월 사이 유아의 애착을 측정하기 위하여 Slough와 Greenberg(1990)의 분리불안 테스트(Separation Anxiety Test: SAT)를 실시하였다. SAT는 면접 유아와 비슷한 또래의 유아가 부모와 분리되는 상황에 대한 6장의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애착 이론에 근거하여 설정된 SAT의 채점기준은 다음과 같다. 저녁에 유아를 혼자 집에 두는 상황과 주말여행을 위해 유아를 친척에게 맡겨두는 상황, 2주 동안 유아가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세 가지 장면(그림 1, 2, 4)은 심각한 분리 상황이다. 이와 같은 경우는 유아가 애착행동을 유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그림에 대한 반응에 의거하여 ‘애착요인’의 점수를 측정한다. 그리고 교육기관에 온 첫 날 어머니가 유아를 두고 떠나는 경우와 부모님과 함께 간 공원에서 유아가 잠시 혼자 놀아야 하는 경우, 부모와 독립적인 공간에서 혼자 잠을 자야 하는 장면은 가벼운 격리 상황(그림 3, 5, 6)으로 유아의 자기신뢰적인 행동을 유발할 것이 예측된다. 이 그림들에 대한 유아의 반응에서 ‘자기신뢰요인’의 점수를 산출한다. 그리고 ‘회피성요인’의 점수는 모든 분리 상황(그림 1~6)에 대한 반응을 분석하여 측정하게 된다. 그리고 분리 상황 여섯 가지에 대한 유아의 대답들은 21가지 하위 유형(subcategories)으로 재분류되는데, 재분류를 위한 기준이 되는 것이 “이 아이는 이제 무엇을 할까?(분리에 대한 대안 활동)”의 질문에 대한 유아의 대답이다.

유아의 반응들이 21가지 하위 유형으로 나뉘어진 후, 애착의 세 가지 요인별로 점수가 환산된다. 애착요인 점수와 자기신뢰요인 점수는 각각 세가지 분리 상황별로 1점(낮음)~4점(높음)이 부여되어 점수 범위가 3~12점이며, 회피성요인 점수는 모든 분리 상황에서 1점(낮음)~3점(높음)이 주어지며 점수 범위는 6~18점이다.

격리불안 테스트(SAT)의 면접 결과는 두 명의 훈련된 평정자가 SAT점수화 과정에 따라 분석한 후 점수화하였다. 본 연구에서 SAT에 대한 평정자간 신뢰도는 애착 .91, 자기신뢰 .80, 회피성 .77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발달 단계가 다른 영아기와 유아기의 동시 연구로 연구의 성격상 SAT 하위 요인 중 애착만을 사용하고자 한다.

2) 어머니의 대모애착(RAAS: Revised Adult Attachment Scale)

어머니의 대모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Hazan과 Shaver(1992)가 제작한 성인애착 척도(Adult Attachment Scale: AAS)를 기초로 정혜승(2000)이 번안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부모 자신의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애착경험과 관련하여 16문항씩으로 구성되어있다. 문항의 예로는 ‘나는 어머니와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기를 원했다’, ‘나는 어머니와 충분한 시간을 보냈었다’, ‘어머니는 나를 잘 이해해 주셨다’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문항들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았다(1)’에서 ‘매우 그랬었다(5)’까지의 점수 범위로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애착척도의 점수 범위는 16점에서 80점까지이며 부정적인 문항(2번, 4번, 7번, 9번)에서 역채점을 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가 어렸을 때 자신의 어머니와 애착이 안정적이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대모에 대한 애착만을 측정하였으며 Cronbach’s α 로 측정된 문항내적 일치도는 .83으로 나타났다.

3)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양육효능감 척도는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의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최형성(2002)이 제작한 척도를 이윤진(2007)이 유아를 둔 어머니에 맞게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윤진이 수정한 양육효능감 척도는 전반적 양육효능감,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의사소통능력, 학습지도능력, 훈육능력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지도능력 한 문항을 제외하고 총 33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또한 하위 영역 중 학습지도능력의 명칭을 유아교육 전공 교수 3인의 동의를 얻어 지적 탐색지원능력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4점 Likert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하위 영역의 특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어머니 양육효능감 척도의 전체 신뢰도 Cronbach’s α 는 .89로 나타났다. 이 척도의 하위 영역별 문항구성과 신뢰도는 <표 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양육효능감 총합을 연구에 사용하였다.

<표 1> 어머니 양육효능감 척도의 하위 영역별 문항 구성 및 신뢰도

하위영역	내용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s α
전반적인 양육 효능감	좋은 부모가 되기위해 양육을 제공하는 전반적인 능력에 대한 기대	11	1, 3, 6, 8, 9 12, 18, 22, 26, 30, 33	.78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자녀의 심신건강과 관련된 능력에 대한 기대	6	4, 5, 11, 17, 23, 27	.54
의사소통능력	자녀에 대한 이해와 수용 등의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9	2, 7, 10, 14, 19, 21, 25,	.79

		기대	28, 32	
지적탐색지원능력	자녀의 지적탐색을 지원하는 능력에 대한 기대	4	16, 20, 24, 29	.68
훈육능력	자녀를 바르게 지도하는 능력에 대한 기대	3	13, 15, 31	.59
전 체		33		.91

3. 연구 절차

본 연구를 위해 Q-set와 SAT에 익숙한 유아교육 전문가에게 Q-set와 SAT도구의 실시방법을 훈련받은 연구원이 유아교육 기관(유치원 1곳, 어린이집 1곳)에 재원 중인 12개월에서 36개월 영아의 어머니 6명과 만 4, 5세 유아 6명을 대상으로 예비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후 8주에 걸쳐 대전시에 소재한 어린이집의 12개월에서 36개월에 해당하는 영아 40명의 어머니들에게 애착 Q-set의 검사를 소그룹 또는 개인별로 실시하였다.

SAT 면접은 기관장과 담임교사의 허락 하에 48개월에서 60개월 사이의 유아 학급에서 40명을 대상으로 오전 일과 시간 동안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다. 면접자와 연구대상 유아와의 개별 면접이 독립된 공간에서 이루어졌고, 한 명의 유아를 면접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평균 15분으로, 연구자가 유아의 반응을 기록하고 모든 면접 과정은 녹취되었다.

어머니의 대모애착 및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대상 영유아의 어머니에게 기관을 통해 혹은 직접 질문지를 배부하고 어머니에 의해 작성된 질문지를 기관을 통해 회수하거나 경우에 따라 개별적으로 회수하였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빈도분석 등의 기초 통계치를 구하고 영아의 애착 안정성 점수는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조사도구의 신뢰도를 구하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연구 문제를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회귀분석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IV. 연구 결과 및 해석

1. 애착의 일반적 경향

본 연구에서 영아와 유아 애착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표 3>에 나타났다. 우선 영아기 애착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측정한 영아 애착 Q-set의 점

수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는 다음과 같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영아 애착의 점수 범위는 -.05 ~ .73이고, 평균은 .39(SD=.17)이었다. 이는 Pederson과 Moran(1990), Posada와 Gao 등(1995)의 연구와 이정희(1994), 나종혜(1995), 이진숙(2001), 한태숙(2008)의 애착의 선행 연구들과 유사한 것이다.

<표 2> 영아 애착의 평균과 표준편차 (N=60)

	범위	평균(M)	표준편차(SD)
영아 애착	-.05 ~ .73	.39	.17

SAT의 측정을 통해 알아본 유아의 애착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3>과 같다. 측정 범위는 3.00~12.00이고, 평균은 8.71(SD=2.31)로 김숙령(1994), 이숙희, 김숙령(1996)의 애착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표 3> 유아 애착의 평균과 표준편차 (N=60)

	범위	평균(M)	표준편차(SD)
유아 애착	3.00 ~ 12.00	8.71	2.31

2. 어머니의 대모애착과 양육효능감 및 경제적 수준이 영유아기 애착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대모애착과 양육효능감, 경제적 수준이 영아기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어머니의 대모애착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경제적 수준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영아의 애착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어머니의 대모애착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경제적 수준이 다중공선성으로 인하여 회귀분석의 가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이상치 진단을 통해 경제적 수준이 유리한 테이터로 사용이 가능하였다. 또한 경제적 수준은 순서형 변수이기 때문에 숫자형 변수로 간주해도 무리 없다고 판단하여 회귀분석이 가능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어머니 대모애착, 양육효능감, 경제적 수준이라는 세 변인이 함께 투입되어 영아 애착을 37% 설명해 준다(F=4.78, P<.01). t통계량 값을 보면 독립변인 중 어머니의 대모애착과 경제적 수준은 영아 애착에 유의한(p<.05) 영향을 미치는 반면 어머니 양육효능감은 영아 애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신의 경제적 수준과 대모애착이 높을수록 영아애착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즉, 어머니가 자신의 영유아기에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애착이 잘 이루어지고 이후 어머니가 되었을 때, 그리고 경제적 수준이 안정적일 때 자녀의 영아기 애착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영아 애착에 미치는 변인의 상대적 중요도에서는 β (표준화 회귀계수)를 기준으로 볼 때 어머니의 대모애착, 경제적 수

준으로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영아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의 회귀분석 (N=60)

모형	비표준화 회귀계수(B)	표준화 회귀계수(β)	t
경제적 수준	.05	.41	2.46*
대모애착	.01	.43	2.65*
양육효능감	.00	.14	.83
상수=-.69	F=4.78**	R ² =.37	

*p<.05 **p<.01

3. 어머니의 대모애착과 양육효능감 및 경제적 수준이 유아기 애착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대모애착과 양육효능감, 경제적 수준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유아 애착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의 회귀모형은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F = 5.21). t통계량을 보면 유의수준 .01에서 어머니의 대모애착이 유아 애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반면 유아 애착에 어머니 양육효능감과 경제적 수준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 대모애착, 양육효능감, 경제적 수준의 유아 애착에 대한 설명력은 37%로 영아 애착에서와 같은 값을 보였다. <표 6>에 의하면 어머니의 대모애착이 높을수록 유아 애착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β=.76). 즉, 어머니가 자신의 어머니와 애착이 잘 형성되었을 경우 어머니 자신이 부모가 되어 유아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유아 애착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표 6> 유아 애착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의 회귀분석 (N=60)

모형	비표준화 회귀계수(B)	표준화 회귀계수(β)	t
경제수준	.33	.22	1.33
대모애착	.29	.76	3.18**
양육효능감 총합	-.07	-.29	-1.14
상수=-3.44	F=5.21**	R ² =.37	

**p<.01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영아와 유아를 대상으로 어머니 변인인 대모애착과 양육효능감, 경제적 수준이 영유아의 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영아기와 유아기의 발달 단계에 따른 어머니 변인의 애착에 대한 영향력이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중심으로 연구문제에 따른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Q-set로 측정한 영아 애착 평균 점수는 .39를 나타냈다. 이는 애착 Q-set를 사용하여 영유아의 애착 안정성을 측정한 선행 연구들(Pederson & Moran, 1990; Posada & Gao, 1995; Posada, Waters, Crowell & Lay, 1995)의 결과와 유사하며 한국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정희, 1994; 나중혜, 1995; 나유미, 1998; 이진숙, 2001; 한태숙, 2008)과도 비슷한 결과이다. 요컨대, 본 연구에서 얻은 애착점수는 영아를 대상으로 애착 Q-set를 사용하여 애착을 측정한 국내외의 선행연구들과 비슷한 수준이다.

다음으로 유아 애착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SAT 면접을 사용하여 애착을 측정한 결과, 본 연구에 참여한 유아의 평균은 8.71이었다. 국내 유아를 대상으로 SAT 면접을 실시한 김숙령(1994)의 애착 평균은 8.26으로 나타났고, 이숙희, 김숙령(1996)의 연구에서는 평균 8.85점의 점수를 얻어 본 연구에서 얻은 유아의 애착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둘째, 어머니의 대모애착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경제적 수준이 영아의 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본 연구의 결과는 영아 애착에 대해 대모애착과 경제적 수준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혀 주었다. 즉, 어머니의 인구학적 변인들과 어머니 관련 변인에서 다른 어떤 변인 보다 대모애착과 경제적 수준이 영아 애착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어머니가 자신의 영아기에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애착이 잘 이루어지고 이후 어머니가 되었을 때, 그리고 경제적 수준이 안정적일 때 자녀의 영아기 애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어머니 양육효능감은 영아 애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 애착에 대모애착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는 본 연구 결과는 어머니가 어렸을 때 자신의 어머니와 맺었던 애착 안정도가 높을수록 영유아가 어머니에 대해 갖는 애착 안정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즉, 영아애착 유형과 성인의 대부모애착 유형 간에 67%의 일치율을 보인다는 연구, 그리고 어머니의 내적실행모델과 자녀의 애착과 관련된다는 연구(이현미, 1997; 전효정, 2003; 채진영, 이강이, 2009; 최해훈, 1997; Shah, Burgess & Hastings, 2010)의 결과들을 지지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연구의 어머니 관련 변인 중 어머니의 대모애착이 자녀의 애착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와 함께 애착의 세대간 전이를 재확인해 주고 있다. 어머니와 자녀관계의 시작이 어머니가 영아였을 때 즉, 어머니가 자신의 어머니를 인식할 수 있을 때부터 시작됨을 의미한다.

한편 영유아 애착관련 선행연구들은 가정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영향에 대해 불일치한 결과들을 보고해 왔다. 이영, 신은주, 나중혜(1995), 이영, 박경자, 나유미(1997)의 연구에서는 사회계층에 따라 영아의 애착은 차이가 있는 것을 밝힌 반면 어머니의 취업 유무와 가정의 총 수입에 따라서 영유아 애착 유형에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연구결과(김영지, 1994; 이숙희 · 김

숙령, 1996)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흥미롭게도, 경제적 수준이 발달 단계에 따라 애착에 영향을 다르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적 수준이 영아의 애착 형성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유아의 애착 형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애착의 결정적 시기가 영아기라는 이론에 비추어 볼 때 초기 영아기에 경제적 수준이 양육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양육자인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더 영향을 미쳤으리라 짐작하게한다. 즉, 경제적 수준이 높은 가정에 태어난 자녀의 경우 그렇지 못한 가정에 비해 어머니의 경제적인 여유는 심리적 안정감에 작용하고 영아와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여 자녀의 안정 애착 형성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듯 애착의 결정적 시기인 9~18개월의 영아기는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애착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이 된다.

한편 Ainsworth(1979)는 영아가 특정 양육자에게 발달시키는 애착의 유형은 그 사람으로부터 받는 양육의 종류에 달려 있다는 양육 가설을 개념화하였다. 이 가설에 의하면 만일 양육자가 긍정적 태도와 양육효능감을 갖고 영아의 욕구에 대해 민감하고 풍부한 자극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한다면, 영아는 안정되게 애착할 가능성이 높다. Donovan과 Leavitt(1989)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애착 간에 직접 상관이 있음을 밝히기도 하였다. 또한 부모의 양육효능감 전체 점수의 상하위 각 30%에 나누어 해당하는 그룹의 애착 수준 차이를 검증한 결과 부모 양육효능감이 높은 상위 그룹 영유아들이 애착 수준이 높았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 및 어머니의 애착 안정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한 집단간 차이를 밝혔다(손금분, 2011; 윤미, 2008).

이와 같은 이론적 배경으로 본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영유아의 애착 형성이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았으나 본 연구 결과는 위의 선행연구와는 다르게 나타났다. 그 이유중의 하나는 본 연구의 자료수집 방법과 선행연구(박응임, 1999; 손금분, 2011; 윤미, 2008; Donovan & Leavitt, 1989)의 자료수집 방법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어머니 양육효능감의 평가는 어머니 스스로 체크하는 설문으로 자신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높거나 낮아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셋째, 어머니의 대모애착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경제적 수준이 유아의 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본 연구의 결과는 어머니의 대모애착이 유아 애착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음을 밝혔다. 이와 같은 연구의 결과는 여성은 자신의 자녀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어머니와의 관계를 반복해서 재연한다(이현미, 1997)는 연구와 영유아의 개인적 변인인 성별, 월령, 기질과 배우자 변인인 남편의 지지와 결혼만족도보다 어머니 자신의 대모애착이 자신의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애착에 많은 영향을 준다(황현주, 정옥분, 2006)는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그러나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경제적 수준은 유아 애착에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지 못했다.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영유아의 애착 형성이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본 이론적 배경(Donovan & Leavitt, 1989; 손금분, 2011; 윤미, 2008)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결과와 같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유아의 애착형성에 관계가 없음을 보여준 것은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자료수집 방법의 차이로 볼 수 있다.

한편 경제적 수준이 유아 애착에는 관계가 없었으나 영아 애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 결과는 경제적 수준이 높은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는 어머니의 경제적인 여유가 심리

적 안정감에 작용하여 영아와 어머니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함으로 자녀의 안정 애착 형성에 영향을 줄 것이다. 즉, 애착의 결정적 시기인 9~18개월의 영아는 어머니의 경제적 수준이 애착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이 될 수 있다. 다시말하면 영아가 애착형성의 결정적 시기로 경제적 수준의 변인 어머니의 심리적 안정감에 직접 작용하여 유아기 보다 영아기에 애착 형성에 큰 변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유아기에는 영아기에 형성된 애착의 지속성 여부나 경제적 수준 이외의 다른 변인의 영향이 애착에 더 큰 작용을 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Hazan & Shaver, 1987; Main, Kaplan & Cassidy, 1995; Schneider-Rosen, Braunwald, Carlson & Cicchetti, 1985).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본 연구는 어머니의 대모애착과 양육효능감 및 경제적 수준과 영유아의 애착과의 관계를 밝혔고, 특히 영유아 애착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애착의 세대전이 현상을 다시 확인하였다. 어머니의 대모애착이 잘 형성되었을 경우 어머니 자신이 부모가 되어 자녀를 양육하는데 효능감을 가지고 자녀와 의사소통이 원활하여 자녀와 안정된 애착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영아기와 유아기의 애착 형성에 어머니의 대모애착이 중요한 변인이 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영유아 보육의 양이 극대화되는 현 시점에서 애착이 영유아 제 발달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식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저소득층의 경제적 수준으로 인해 어머니와 영유아 사이의 불안정한 양육이 애착의 질을 낮추고 이것이 자녀의 내적실행모델로 구조화되어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소득층 영유아의 복지정책 마련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대모애착과 양육효능감을 변인으로 하여 영유아의 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최근 사회의 변화는 아버지 역할이 영유아 발달에 중요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영유아의 애착에 어머니와 더불어 아버지의 대모애착과 양육효능감이 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 영유아 애착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은 것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측정이 어머니의 자기 보고식 면접지지만 이루어져 객관적인 결과를 얻기 어려웠기 때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자기 보고식 면접지와 더불어 전문가 관찰을 통한 신뢰로운 다면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 김숙령(1994). 한미 유아들 간의 격리불안 테스트 결과 비교. **배재대학교 교육논총**, 7(1), 121-134.
- 김영지(1994). 어머니에 대한 아동의 애착과 사회적 능력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나유미(1998). 한국 영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 행동 특성.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나종혜(1995). 어머니와 탁아교사에 대한 유아의 애착 비교.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혁준(2005). 취학 전 아동을 둔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관련 변인 연구. **아동학회지**, 26(5), 139-149.

- 박응임(1994). 영아-어머니 간의 애착 유형과 그 관련 변인.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응임(1999). 유아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그 관련변인: 발달적 맥락주의 접근으로. **한국영유아보육학회지**, 18, 197-222.
- 서소정(2004). 양육효능감과 자녀양육행동 매개모델. **대한 가정학회지**, 42(4), 11-27.
- 손금분(2011).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이 모자간의 애착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명자(2008).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유효순(2012). 어머니 자신의 애착표상, 양육행동 및 유아의 기질과 유아 애착 간의 구조모형분석. **유아교육논집**, 16(3), 49-70.
- 윤 미(2008). 아동의 타인양육 경험 및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아동의 애착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경혜(2002). 어머니 특성에 따른 아동의 애착 안정성 형성의 발달 경로. **아동학회지**, 23(1), 153-171.
- 이숙희, 김숙령(1996). 아동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7(1), 87-100.
- 이 영, 박경자, 나유미(1997). 애착 Q-set의 국내 준거 개발 연구. **아동학회지**, 18(2), 131-148.
- 이 영, 신은주, 나종혜(1994). 영유아 양육환경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I). **아동학회지**, 15(2), 37-54.
- 이 영, 신은주, 나종혜(1995). 영유아의 양육환경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II). **대한 가정학회지**, 33(3), 150-165.
- 이영환(1992). ‘낮선 상황’에서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 유형.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윤진(2007). 사회적 지원과 유아의 기질이 어머니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정희(1994). 취업모와 자녀 간 애착 안정성과 관련변인 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진숙(2001). 어머니의 온정 및 통제와 유아의 애착안정성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9(6).
- 이현미(1997). 어머니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아동의 애착안정성.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효정(2003). 어머니-유아의 세대간 전이의 메커니즘: 어머니의 내적실행모델과 자녀양육행동이 유아의 애착 유형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8(3), 159-174.
- 정혜승(2000). 어머니 자신의 부모애착과 양육행동 및 자녀애착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채진영, 이강이(2009). 어머니의 원부모에 대한 애착 표상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16(4), 95-114.
- 최형성(2002).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및 스트레스와 아동의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태숙(2008). 어머니의 인구학적 특색, 정서성, 부부갈등 및 양육관련 변인이 유아의 애착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황현주, 정옥분(2006). 영아에 대한 어머니 애착과 관련변인. **인간발달연구**, 13(4), 59-115.
- Ainsworth, M. D. S. (1979). Infant-mother attachment. *American Psychologist*, 34, 932-937.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 Belsky, J. (1981). The human experience: A family perspective. *Development Psychology, 17*, 3-23.
- Bowlby, J. (1958). The nature of the child's tie to his mother.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39*, 350-373.
- Bowlby, J.(1977). Themaking and breaking of affectional bond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30*, 201-210.
- Bowlby, J(1980). Attachment and Loss, Vol. 3. Loss, sadness, and depression. New York: Basic Books.
- Bowlby, J. (1982). *Attachment and loss. Vol. 1 : Attachment(2d)*. New York : Basic Books.
- Bretherton, I. (1985). Attachment theory: Retrospect and prospect. In I. Bretherton, & E. Waters (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net. Vol. 50 (pp. 3-35)*.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rockenberg, S. D. (1981). Infant irritability, mother responsiveness, and social support influences on the security of mother-infant attachment. *Child development, 52*, 857-865.
- Crowell, J., & Feldman, S. (1988). Mothers' internal models of and children's behavioral and developmental status: A study of mother-child interaction. *Child Development, 59*, 1273-1285.
- Cummings, E. M., & Cicchetti, D.(1990). Toward a transitional model of relations between attachment and depression. In M. T. Greenberg, D. Cicchetti, & E. M. Cummings(Eds.), *Attachment in the preschool years* (pp.311-338),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Donovan, W. L., & Leavitt, L. A. (1989). Maternal self-efficacy and infant attachment: intergrating physiology, perceptions, and behavior, *Child development, 60*, 460-472.
- Erickson, M. F., Sroufe, L. A., & Egeland, B. (1985). The relationship of quality of attachment and behavior problems in preschoolin a high risk sample. In I. Bretherton & E. Waters (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Vol. 50* (pp. 3-35),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azen, N. L., & Durrett, M. E. (1982). Relationship of security of attachment to exploration and cognitive mapping abilities in 2-year-olds. *Developmental Psychology, 18*, 751-759.
- Hazan, C., & Shaver, 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511-524.
- Main, M., Kaplan, N., & Cassidy, J. C. (1985). Security in infancy, preschool and adulthood: A move to the level of representation. In I. Bretherton & E. Waters (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Vol. 50* (pp.60-104),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 Mondell, S. and Tyler, F. B. (1981) Child psychosocial competence and its measurement.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6*, 145-154.
- Pedrrson, D. R., Moran. G., Sitko, C., Compbell. K., Ghesquire, K., & Action, H.(1990). Maternal sensitivity and the security of infant-mother attachment A Qset study. *Child Development. 61, 1974-1983*.

- Posada, G. Gao, Y., wU, f., Posada. R., Tascon, M., Sch elmerich, A., Sagi, A., Kondo-Ikemura, K., Haland, W., & synnevaag, D. (1995). The secure-base phenomenon across cultures: Children's behavior, mothers' preferences, and experts' concepts, In E. Waters. B. E. Vaughn. G. Posada, K. Kondo-Ikemura(Eds.), *Caregiving cultural and cognitive perspective on secure-base behavior and working mothers: New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60*(2-3. Serial No. 244), 27-18.
- Posada, G., Waters. E., Crowell, J. A., & Lay. k. l. (1995). Is it easier to use a secure mother as a secure base? attachment Q-set correlates of the Adult attachment Interview, *Monographs of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60*(2-3. Serial No. 244), 133-145.
- Shah, P. E., Fonagy, P., & Strathern, L. (2010). Is attachment transmitted across generations? The plot thickens. *Clinical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15*, 329-345.
- Slough, N. M., & Greenberg, M. T.(1990). Five-year-olds' representations of separation from parents: Responses from the perspective of self and other. In I. Bretherton & M. W. Watson (Eds.), *Children's perspectives on the family,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48*, 67-8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Sroufe, L. A. (1986). Bowlby's contribution to psychoanalytic theory and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 Psychiatry, 27*, 841-849.
- Interview. *Psychological Bulletin, 117*, 387-403
- Waters, E., & Deane, K. E.(1985). Defining and assess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attachment relationships : Q-methodology and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infancy and early childhood. In I. Bretherton & E. Waters (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1-2, serial No.209), 41-65.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effects of maternal attachment, parenting efficacy, and financial background on the infant and child's attachment.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60 infants(12 to 36 months) and children(48 to 60 months) in 8 educational institutions located in 5 Daejeon districts. Infant Q-set test and Slough and Greenberg's Child SAT interview were conducted for assessing infant's and child's attachment. For maternal attachment, AAS(Adult Attachment Scale) by Jung Hae-Seung was used and for parenting efficacy, the instrument designed by Yoon-Jin Lee was used. Mean and standard deviation were calculated and regression analysis was done. The results showed that maternal attachment had an impact on infant's and child's attachment and there was a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background and infant's and child's attachment.

▶*Key Words: attachment maternal attachment parenting efficacy economical background*

논문투고 2013. 12. 16.
수정원고접수 2014. 02. 03.
최종게재결정 2014. 02. 16.